

편집자 註 : 본 란에서는 앞으로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에 실린 질의응답중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의가 활동하는 중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학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형식으로 소개하도록 할 것이다.

문

Hodgkins'병과 관련이 있는 화학물질이 있습니까?

답

문헌고찰한 바에 의하면 Hodgkins'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작업환경중 혹은 대기중의 화학물질은 없다. 작업환경중에서 사용 혹은 발생하는 물질중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물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가 이미 여러가지 있다(예 : ACGIH의 물질별 허용기준에 관한 책). 흰쥐나 생쥐를 이용한 실험상 발암성물질 혹은 암발생증가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으나 이러한 자료를 인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따른다. 조혈장기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화학물질은 지금까지는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인체의 조혈장치 기능과 관련된 실험에 가장 알맞는 동물은 원숭이인데 현재 문헌상 원숭이에서 Hodgkins'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된 화학물질은 없다.

문

연관공이나 하수처리작업자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까?

답

두 직종은 B형간염 예방접종대상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혈액을 통하여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가 하수에서는 전염시킬 수 있는 수준이하로 그 수가 희석되며 그의

생존력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두 직종에서는 B형간염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이들에서의 B형간염발생률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판단은 아니므로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적인 권고는 아니다.

최근의 B형간염예방에 대한 미 공중보건사업 방침의 대상중에 연관공과 하수처리작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업에서는 B형간염예방의 대상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혈액이나 체액에 폭로되는 업무 혹은 활동을 하게 되는 직종을 가진 모든 근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혈액, 체액(양수, 腹水, 흉막액, 滑液, 정액, 질분비물), 혹은 혈액에 오염된 다른 체액에 폭로될 때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접촉은 개방창상이나 점액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미국의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직장 혹은 직종을 위험群으로 보고 예방접종할 것을 제안하였다.

병원, 혈액은행, 의원 및 치과의원, 요양원, 경찰, 소방소, 외래진료소, 산업장의 진료소, 기숙사, 장의사, 연구소, 감화원(교화원), 의학 및 치과실험실, 의료기기수리

이상에서 보듯이 연관공과 하수처리작업자가 포함될 직종은 없다(편집실 註 : 다른 문헌에는 군대, 동성연애자, 산모가 양성인 경우, 그외 감수성이 높은 군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산소, 고아원등은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원래의 주의사항에서 언급한 “계획에 없거나 예측불가능하게 혈액, 체액, 조직등에 피부가 접촉하게 될 수 있는” 업무에 연관공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